

멋드러진 고택·돌담... 오래된 아름다움을 품은 곳

혁신도시 효과에 인기 끄는 나주 '도래 한옥마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나주시 다도면 도래 한옥마을도 덩달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고택(古宅)과 돌담이 어우러진 골목길, 연못 등 아름다운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주 남평읍에서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국립 나주병원을 지나 다도면 쪽으로 산림자원연구소를 끼고 돌면 바로 도래 전통 한옥마을이 나온다. 지난 2006년에 전라남도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됐다.



전통조경의 멋을 간직한 흥기창 가옥



도래마을 입구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흥기창가옥·흥기현가옥 등 중요민속자료 옛 모습 간직 2006년 전통한옥마을로 지정 여유·휴식 찾는 발길 줄이어

◇하늘의 내린 보석 같은 관광지=도래마을은 본래 마을 주산(主山)인 식산(食山)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세 갈래로 갈라져 '내 천(川)자'를 형국을 이룬다 해 도천(道川)마을로 불렸다. 이후 '천(川)'의 우리말이 '내'이므로 이후 '도내'가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하기 쉽도록 '도래'로 변했다고 한다.

도래마을은 식산자락에 흠뻑 젖어 있는 고인돌로 보아 선사시대 때부터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 세조 때 한성우윤(漢城右尹) 최거가 탐진현감으로 가던 중 풍광이 좋아 이곳에 들어와 살았다. 이후 중종 때 흥현의가 조광조와 같은 해에 사마시에 급제한 이유로 기묘사화의 화를 면려해 벼슬을 포기하고 이 마을에 은거하다가 최윤형의 딸과 혼인해 터를 잡고 살면서 풍산 흥씨 집성촌을 이뤘다.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한옥들은 건축연구에 중요한 문화재급 고택이다. 도래마을에 들어서면 잘 정돈된 연못 연



마을앞 연못과 잘 어울리는 나주시 다도면 도래 한옥마을 영호정.

못을 앞에 두고 시 문화유산 영호정(제34호)과 양벽정(제35호)이 방문객을 맞는다. 영호정은 조선 중종 때 남평현감인 휴암 백인걸이 남평현내에 설립한 4개 학당 중 하나인 '도천학당'의 역사를 전승한 건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다.

흥현의와 최홍이 교육을 맡은 도천학당은 문과 11명, 무과 5명의 급제자와 총의 열사 16명, 생원·진사 22명 등 다수의 인물을 배출해 명촌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도천학당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선비들이 도천사회를 결성해 야학을 운영했던 영호정과 여러 고을 선비들과 교류하며 남도의 맥을 이어온 '도천사회집' 3권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 골목 곳곳에 ▲중요 민속자료인 흥기창 가옥(제151호), 흥기현 가옥(제165호) ▲도 민속자료인 흥기창 가옥(제9호), 흥기창 가옥(제10호) ▲시 문화유산인 귀래당(제21호), 도래마을 옛집(제2호) 등 유서 깊은 한옥과 정자가 남아있어 양반 동네

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도래에 19세기의 남도한옥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직접 살면서 옛 모습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네 흥씨의 가옥내 정원들은 전통조경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잘 정돈돼 있다.

◇다양한 문화유산 '눈길'=상량문 기록으로 보아 1918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흥기창 가옥은 조선 후기 남도지방의 주택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재로 본래 안채·사랑채·행랑채로 이뤄졌으나 지금은 안채만 남아 있다.

골목을 따라 마을 오른쪽 끝에 위치한 내서널트러스트 시민문화유산 '도래마을 옛집'은 1930년대 한옥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준다.

도래마을 옛집은 (재)내서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서 지난 2006년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금,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안채와 대문채를 원형 복원했다.

도래마을 옛집과 마주한 흥기창 가옥은 남도 양반주택의 공간구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직선축에 맞춰 가장 안쪽에 안채, 가운데에 사랑채, 앞쪽에 솟을대문을 갖춘 행랑채가 배치돼 있다.

안채는 일자형 6칸 전후 머리뿔집인데 2개의 대청마루가 마려내 있다. 사이는 벽으로 구획해서 이용을 달리할 수 있게 했는데, 전남지방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평면구성이다. 또 행랑마루와의 사이담장은 기와를 마주해 구멍을 만들었는데 사랑마루에서 대문에 들어서서 사람을 볼 수 있게 한 의도라고 한다.

마을 행사로는 100여 년부터 내려오는 대동계로 매년 정월 초이튿날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합동 세배와 불에 열리는 '도래의 날'이 있다.

이 밖에도 인근에 나주 수목원을 비롯해 드라이브 코스인 나주호와 불회사·운흥사·운주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공공도서관 내달 10일부터 봄학기 평생학습 강좌

나주 공공도서관(관장 김재원)은 3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봄학기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봄학기 강좌는 ▲취미와 실용·창업, 자격증, 어학 등 트렌드를 반영한 성인 강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대상 토요강좌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꿈벗 프로그램' 등 총 46개 강좌로 운영된다.

또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강좌로 생활영어 회화와 오카리나, 춤 테라피, 부동산경매 이론 및 자산관리도 개설한다. 특히 조경관리기능사 등 5개 자격증 취득과정과 연중으로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운영함으

로써 지역민의 자기계발과 전문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접수는 10~12일 인터넷으로 학생강좌 100%와 성인강좌 80%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성인강좌 20%는 16~17일 이틀간 방문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방문접수자 추첨결과는 26일 오후 3시에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공지한다.

김재원 관장은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자기 계발을 하고 더 나아가 배움을 토대로 나눔과 소통의 재능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1-330-6732)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농업인 월급제' 4월부터 시행

市-4개 농협 협약 체결

나주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올해부터 월급을 받게 됐다.

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은 지난 3일 시청 이화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참여농협은 미국 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비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게 된다.

해당 농업인들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지급받게 된다. 월급의 상·하한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시는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 는 정착 돈이 떨어져 대출을 받으면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매대금 전체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해 부담이 크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자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 확대도 손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4개 농협은 오는 3월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 홍보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4개 농협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농협과 함께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jung@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2015년 3월 1일(일) 08:30 출발

문의 :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플코스 8:30, 하프코스 8:35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상무지구 끝!!
플코스, 하프코스 중심 대회!!

대회개요

- 코스 : (1) 플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승촌보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2) 하프코스 : 아시아문화전당(구,전남도청) 출발 → 서창교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 종목 : 플코스, 하프코스

신청 및 접수

- 참가자격 : 신체건강한 모든 사람(제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접수마감 : 2015년 2월 5일(목)
- 참가비 : 25,000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http://mara.kjmedia.co.kr> 나. 신청서 FAX접수 : 062-222-0195 다.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문화사육국 (금남로2가 우등빌딩 16층)

주요운영안내

- 참가지급품 : 배낭(참가자 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복증(완주자), 간식 및 음료
- 개인시상 : 플·하프 1~45위 까지 시상
- 특별상 : 원팀부상, 포토제닉상, 협운상 50명
- 단체 참가 특전 : 단체상 1~15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 원거리 참가자 버스운행 (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주최 |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주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후원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보훈청**